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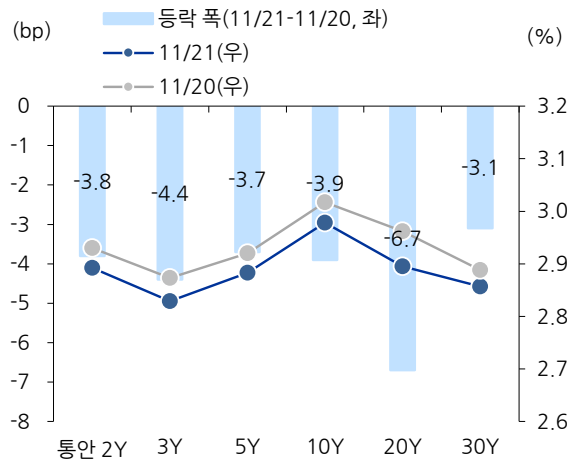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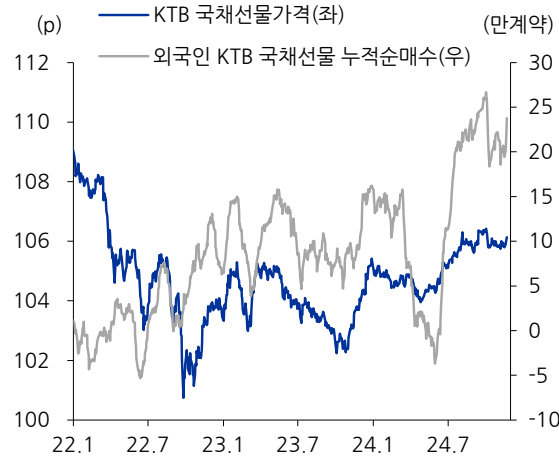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11/21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829%	-4.4	-10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978%	-3.9	-9.6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4.9	14.4	14.5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14	12.0	29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17.35	35.0	94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350%	3.2	0.3
	미국채 10년물	4.422%	1.0	-1.6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7.2	9.4	9.1
	독일국채 10년물	2.315%	-3.5	-2.3
	호주국채 10년물	4.579%	1.9	-11.8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연준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약보합 출발하였으나 이내 강세 전환. 러-우 긴장 지속, 우호적 금통위 기대, 견조한 대기매수세 영향
- 신성환 금통위원, 강달러·미 경제상황 등을 근거로 한 국경제에 우려감 내비쳐 금리 하락 뒷받침. 국고채 20년 금리, 20년물 폐지 루머로 낙폭 부각되었으나 기획재정부측은 사실무근임을 주장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실업수당청구건수, 예상치를 하회하며 둔화. 반면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는 (-)전환하며 전월 대비 큰 폭 약화. 엇갈린 지표 속 금리는 상승
- 러시아, 우크라이나에 ICBM 격포하는 등 러-우 긴장은 지속. 다만 시장 영향은 미미
- 시카고 연은 총재, 향후 1년간 기준금리 대폭 하락할 것을 언급. 인플레이션 전진 및 견고한 노동시장에 대한 자신감 표출

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11/21일	1D	1W	YTD
원/달러	1,397.50	0.5%	-0.5%	8.5%
달러지수	107.02	0.3%	0.1%	5.6%
달러/유로	1.048	-0.6%	-0.4%	-5.1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26	0.1%	-0.0%	1.8%
엔/달러	154.50	-0.6%	-1.1%	9.7%
달러/파운드	1.260	-0.4%	-0.5%	-1.0%
헤알/달러	5.81	0.7%	0.3%	19.7%
WTI 근월물(\$)	70.14	1.8%	2.1%	-2.1%
금 현물(\$)	2,671.58	0.9%	4.1%	29.5%
구리 3개월물(\$)	9,023.00	-0.7%	0.4%	5.4%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6.60원 상승한 1,397.5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02.20원 마감.
- 간밤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속 달러가 강세 전환하면서 달러-원은 1,399원에서 상승 출발.
- 오전 한 때 1,400.10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반락. 달러가 아시아 장중 다시 약해졌고 위안화도 강세를 보였음. 장중 우에다 BOJ 총재는 12월 금리 결정에 대해 많은 데이터가 남아 있어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채 금리에 연동되며 추가 상승, 1년 여 만에 107선 돌파
- 미국 개장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ICBM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유지. 그러나 금융시장의 반응은 제한적.
- 전일 발표된 경제지표는 다소 엇갈린 모습. 신규실업수당 청구는 21.3만 건으로 7개월 래 최저치를 기록. 그러나 지난주 급등했던 뉴욕과 달리 필라델피아, 캔자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예상치를 하회. 그러나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도 동반 강세.
-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앞으로 1년 간 정책금리가 상당히 낮아지겠지만, 목표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라 발언.